

佛法을 기업 가치로 삼은 메타엔진社

(Metta-Engine)

부처님 가르침에서 기업 가치를 찾고, 이를 실천하는 영국 웨일즈(Wales) 지역의 회사와 그 공동설립자들이 화제다.

영국의 지역 매체 웨일즈 온라인(Wales Online)은 3월 22일자 보도에서 "IT 개발 및 관련 출판 사업을 하고 있는 메타엔진(Metta-Engine) 사(社)가 부처님 가르침에서 기업의 가치와 윤리를 찾는 것은 물론 회사 내에 명상실을 개설해 임직원에게 친(親) 불교적인 업무환경을 선보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타엔진(Mettaengine) 사는 웨일즈의 주요 불교센터인 '칼디프(Cardiff Buddhist Centre)'에서 단기명상코스에서 수련하던 세 명의 불자들이 의견을 모아 설립한 웨일즈 지역의 첫 불교기업이다. 이들 공동설립자들은 그레헨 쉬멜(Graham Shimell · 51), 윌리엄 엘워티(William Elworthy · 48), 존 제임스(John James · 47)이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명상"이라고 말하는 그레헨 쉬멜은 "이때 우리는 함께 사내 명상실로 발길을 옮기는데, 아침 명상을 거르지 않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불이 봉안돼 있고, 향 내용이 향로에서 은은하게 피어나며 부처님 찬(chant · 讚)이 CD 플레이어에서 잔잔하게 흐르는 이곳은 사실 공동설립자들만의 공간은 아니다. 업무 시간에 관계없이 직원이면 누구나 이곳을 찾아와 명상하며 업무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고,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메타엔진(Metta-Engine)사 내에 마련된 명상실에서 명상을 하고 있는 임직원들. 메타엔진의 공동설립자인 리암 엘워티(William Elworthy · 48, 사진 맨 왼쪽)와 그레헨 쉬멜(Graham Shimell · 51, 사진 중앙)이 보인다.

사내 명상실 마련... 매일 출근 후 아침명상 英 웨일즈 첫 불교기업... 오계(五戒)를 경영 윤리로

칼디프 불교센터서 만난 G. 쉬멜 · 그레헨 쉬멜(Shimell) 등 3명 공동설립

도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우리 임직원들이 사내 명상실을 찾는 시간은, 경쟁 치열한 일터를 '열반의 장'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한 존 제임스는 "종을 울리고 명상을 시작할 때, 우리는 마음을 밝히는 데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우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며 "그 순간만큼은 '나'와 '네'가 다르

지 않다"고 덧붙였다.

"저와 제 직원들은 호흡에 중점을 둔 명상을 한다"는 윌리엄 엘워티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적대감을 품었던 우리 마음은 평온을 되찾는다"며 "그래서 명상실을 나올 즈음이면 우리를 화나게 만들었던 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임직원들은 일터에서도 오계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그는 "이런 노력이 직원들에게 전해져, 서로를 더욱 신뢰하고 관용해지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이는 임직원 대부분 명상실을 자주 찾는 이유"라고 귀띔했다.

웨일즈 온라인에 따르면, 이들 세 명의 공동설립자들은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는 와중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사업장에서 자신들의 기업 가치가 희망의 불꽃이 되길 희망하고 있다.

"서구는 물질주의에 큰 가치를 두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원인이기도 하다"고 전제한 그레헨 쉬멜은 "최신형 BMW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줄 수 없듯이,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찾아야 한다"며 "메타엔진과 우리들은 부처님 가르침에서 그 가치를 찾았다"고 강조했다.

웨일즈 온라인은 "영국 웨일즈(Wales) 지역에서의 불교세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비트 세대(Beat Generation)를 살았던 중장년층이 지역 공동체의 견인마차로 등장한 시점이라는 데서도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비트 세대란 19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지칭한다. 그들은 개개인이 거대한 사회조직의 한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항하여, 민속음악을 즐기며 산업화 이전시대의 전원생활, 인간정신에 대한 신뢰, 낙천주의적 사고를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미얀마, 불교·무슬림간 폭동 40명 사망

금가게서 다툼 번져...비상사태 선포



무장한 불교도들이 미얀마 만달레이주 메이크틸라시에서 건물을 파괴하고 있다.

다수의 불교도와 소수의 무슬림이 섞여 사는 미얀마 중부 도시에서 이슬람교와 불교도 간 유혈 충돌이 이어져 최소 40명이 사망했다.

이에 미얀마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테인 세인 대통령은 3월 28일 종교 극단주의자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즈(NYT) 등 주요 외신은 3월 22일(현지시간) "미얀마 중부 만달레이주 메이크틸라시에서 촉발된 종교 분쟁이 격화해 도시 외곽으로 번져 나가며 사상자가 늘고 있다"며 "일부 승려가 이끄는 불교도 폭도들이 방화한 무슬림 집을 진화하려는 소방당국을 방해하고 현지 취재 중인 기자들을 위협해 상황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지에서는 주민들의 폭도로 현지 상황은 킬링 필드를 보는 것 같으며 격화된 상황을 묘사했다.

한 현지 신문기자는 "방화 때문에 새가 말게 탄 시체만 15구 봤다"며 "사망자수는 경찰이 밝힌 20명보다 훨씬 많은 최소 40명"이라고 말했다. 메이크틸라시 의원은 "3일동안 이 지역 이슬람 사원 17곳 중 최소 5곳이 불탔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주민 중 다수를 차지하는 불교도들이 전날 충돌에서 승려가 사망한 것에 분노해 무슬림을 무차별 공격하면서 무슬림들은 도시를 떠나거나 경기장으로 피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테인 세인 대통령은 3월 28일 대국민연설에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두 종교의 송고한 가르침을 악용하고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증오를 심으려는 모든 정치 기회주의자들과 종교 극단주의자들에게 경고한다"면서 "저들의 시도는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인 대통령은 "사태 해결을 위한 무력 사용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일반 대중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비로로 무력 투입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얀마 내 무슬림 지도자들은 세인 대

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무거운 처벌 대상인 방화, 대학살 등 범죄가 자행됐다"며 "관계 당국이 눈앞에서 거림없이 자행되는 범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압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토마스 오제야 키타나 미얀마 주재 유엔 인권특별조사관은 같은 날 "최근 발생한 일부 폭력 사태에 '국가 개입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키타나 조사관은 "군경과 민간 법집행관들이 잘 조직된 극 극우주의 불교도 무리들의 횡포를 포함해 눈앞에서 펼쳐지는 잔혹 행위들을 좌시했다"고 지적했다.

"종교 극단주의자에 경고"엄포 UN "국가 개입 정황 있다"

이번 충돌은 3월 20일 미얀마 양곤에서 북쪽으로 550km 떨어진 지역인 메이크틸라시(市)에 위치한 무슬림이 운영하는 금가게에서 주인과 고객 간 금 거래를 놓고 벌어진 언쟁으로 시작했다. 언쟁 중 남성이 2명 다친 것이 현지 주민 200여 명이 거리로 몰려 나와 폭동을 일으켜 승려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시민 10만 명 중 30%가 이슬람교도인 메이크틸라에서 이슬람교도의 상점과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고 불교도들이 마테데와 칼을 들고 도시를 활보해 이슬람교도들이 외출을 삼가고 있다.

다수의 불교도와 소수의 무슬림이 섞여 사는 미얀마에서는 종교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6월에는 서부 라인주에서 무슬림이 불교도 소녀를 성폭행해 촉발된 유혈 충돌로 최소 180명이 숨졌다.

하지만 이번 충돌이 주로 미얀마 서부에서 벌어진 데 비해 이번 충돌은 치안이 잘 유지된 중부 지역에서 일어났다. 이에 대해 NYT는 "종교 분쟁이 국가 핵심부까지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아은 기자



"캠퍼스 수놓은 2500년 전 티베트 춤사위" 지난 3월 21일 미국 플로리다 주의 폴크 카운티(Polk County)의

레이크랜드 대학(Lakeland University)에서 '티베트 불교 문화축제'가 열렸다. 대학 신문 'School Newspapers Online'에 따르면 캠퍼스 내 브래들리 센터(Bradley Center)에서 열린 이번 문화축제에는 인도 문드갓(Mundgod) 소재 '드레퓀 로세링 사원(Drepung Loseling Monastery)'의 스님들로 구성된 예술단이 2500년 전통의 노래와 춤으로 무대를 수놓아, 재학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번 공연을 주관한 알렉스 듀덱(Alex Dudek · 역사학 · 2학년)은 "전통 춤을 선보인 티베트 스님들의 동작 하나 하나에서,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앤디 크리베론(Andy Crivellone · 교육학 · 1학년)은 "스님들이 무대에서 선보인 특이한 목소리는 너무 매력적이어서, 불교철학을 담은 연설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드레퓀 로세링 사원(Drepung Loseling Monastery) 8명의 스님들로 구성된 예술단은 '티베트문화 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레이크랜드 대학 공연에 이어 미국 전역을 순회할 예정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日사찰,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 낙찰받아

사이후쿠사 이케구치 스님, "건물 임대 요청시 빌려줄 것"

일본의 한 사찰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도쿄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양도받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3월 29일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의 제일 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가고시마(鹿児島)시의 사찰 사이후쿠(最福)사에 매각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앞으로 일주일 간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가 없으면 사이후쿠사는 소유권을 최종 양도받게 된다"고 전했다.

사이후쿠사는 3월 26일 경매에 넘어간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 및 토지를 감정가인 26억 6천만엔을 넘는 45억 1900만엔에 낙찰받았다. 사이후쿠사의 이케구치 에칸(池口恵観) 스님은 "조총련에서 건물



일본 사이후쿠사에 매각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도쿄 중앙본부 건물.

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혀 조총련 본부 기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후쿠사는 1973년 건립된 일본 진연중 계열의 사찰로 이케구치 스님은 지난 2009년부터 5차례 북한을 방문했으며 북한 정부 관계자와 긴밀히 교류해왔다. 특히 방북 중 일본인 남치 단체인 '오호그룹'을 면회하고 지난해 4월에는 '고(故)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축하 행사에 참석해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이아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층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에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봉사도 지원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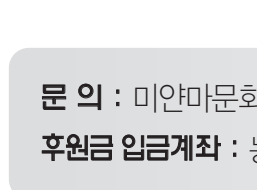
- 신부 출가의식 지원
신부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상명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